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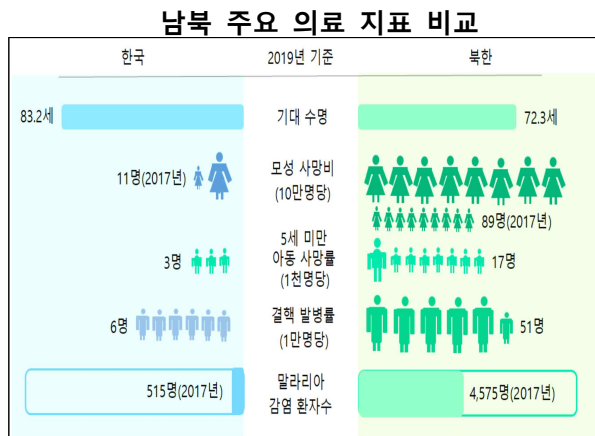
북한 의료산업 동향 및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김혜진 (khj785@kdb.co.kr)

- ◆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의료시스템 쇠퇴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고 의료장비, 의약품 등이 만성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
- ◆ 최근 평양 중심의 대형병원 신규 건설, 지역거점 병원 개·보수, 의약품 생산공장 현대화 및 원격진료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
- ◆ 2021.11월 통일부 주관으로 출범한 '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'을 통해 향후 AD 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지원, 한반도 약초자원 발굴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

□ 독자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했으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의료시스템 기능 상실로 질병 관리가 미흡한 실정

- 무상치료제, 의사담당구역제, 예방의학, 고려의학을 기본 특징으로 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경제난 이후 의료시스템 기능이 전반적으로 쇠퇴
 - 주체의학 확립을 위한 고려의학 강화로 1차 진료의 70% 이상을 고려의학에 의존
- 높은 사망률로 한국비 기대수명이 짧으며, 감염성 질환 증가 등 주민 건강 악화
 - 북한의 모성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89명으로 한국의 11명 대비 8배 높으며, 결핵 발병률은 인구 1만명당 51명으로 한국의 6명 대비 9배 정도 높음



자료 : 세계은행, 세계보건기구 등

북한 의료기관 분류

| 형태 | 의사 수 | 병상 수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차 | 리·동진료소 | 1~2명 / 0~2개 |
| | 종합진료소 | 4~5명 / 0~5개 |
| | 리인민병원 | 10명 이내 / 5~20개 |
| 2차 | 시·군·구역 인민병원 | 약 50명 / 100~500개 |
| 3차 | 도인민병원 | 약 200명 / 800~1200개 |
| 4차 | 중앙병원 | 약 400명 / 1000개 내외 |

자료 : 보건복지부 등

□ 의료기관과 의사·약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의료장비, 의약품, 의료용 소모품이 만성적으로 매우 부족

- 의료기관은 2011년 8,946개에서 군 및 리병원 증가 등으로 2017년 9,076개로 130개 증가했으며, 행정구역별로 1~4차급 의료기관으로 분류
- 의사·약사 수는 인구 1만명당 2010년 32.2명에서 2019년 36.4명으로 증가했지만 의사 양성 제도적 문제로 질적 수준 향상에 한계
 - 의학대학 통신학부 졸업시 현직 준의사(의학전문학교卒)나 간호원이 의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상태
- 의료장비들은 대부분 낙후되었고, 의약품 공급 시스템 붕괴로 의약품 안전성이 낮으며 의료용 소모품·의약품 대부분을 비공식적 경로로 개인이 구매
 - 첨단 의료장비 부족으로 3차 의료기관조차 대부분 CT·MRI 진단장비가 없고,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들은 전력부족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
 - 의약품 부족으로 가짜약이 제조·유통되고 있으며 병원·약국이 아닌 장마당을 통해 환자가 의약품 등을 개인적으로 자체 부담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

□ 최근 대형병원 건설, 원격의료체계 도입 등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 경주

- 평양시 중심으로 대형전문병원을 신규 건설하고 있으며 지방병원 현대화 추진
 -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, 임플란트 국산화에 성공한 류경치과, 류경안과병원을 개원했으며 2022년 평양종합병원 완공 예정

평양종합병원 조감도



자료 : 자유아시아방송(2020.6.11.자), "평양종합병원 건설사업"

정성제약종합공장 생산약



자료 : 자주시보(2020.7.22.자), "북 정성제약종합공장, 효능 높은 의약품 개발 생산 중"

- 함경남도 인민병원 개원, 삼지연시 인민병원 개건을 통한 최신 설비·화상진료 시스템 설치 등 지방병원 건설·현대화로 코로나19 방역과 의료역량 강화에 집중

○ 제약시설 가동률 정상화를 통한 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해 개건사업 진행

-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링거약 등 다양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, 자강도와 함경북도는 도내 시·군의 고려약 공장 개건사업 추진 중

○ 과학기술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성은 2021년 '의료정보화사업' 계획 수립

- 원격진료시스템은 지방병원과 평양중앙급 병원간 협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, 향후 5년간 원격진료시스템 전국적 확대, 의료서비스의 지능화 등을 목표로 설정

□ 2021.11월 통일부 주관으로 출범한 「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*」을 통해 향후 대북 보건의료협력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
- * 정부, 지자체, 국제기구, 국제 NGO,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한반도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의제를 상시적으로 논의·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협의체

○ 「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」 출범식에서 플랫폼의 비전과 목표, 앞으로 나아갈 목표를 담은 '공동 선언문' 발표

- '공동 선언문'에 한반도 생명·안전 공동체 조성, 연대·협력·개방된 공동체 지향,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(SDGs)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, 한반도 주민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협력 증진, 매년 1회 정례회의 등의 내용 포함

○ 「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」 1차 회의*(21.11.10~11)에서 결핵 퇴치, 천연물 신약 개발 등에 대한 남북 보건의료 R&D 협력 논의

- * 통일부 장관, 보건복지부 2차관, 국회 외교통일위원장, 대한적십자사 회장, 남북교류지원협회장, WHO 사무총장, 세계백신면역연합 이사회 의장,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, 고려대 의료원장 등 참여
- 북한에서 가제·수액·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라 결핵·간염과 같은 감염병 발병률이 높은 점을 고려한 AD 주사기* 등 의료용 소모품 지원, 북한의 천연약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약초자원 공동 발굴 등에 대한 논의도 향후 가능할 전망

- * Auto Disable, 1회 사용 후 주사기 밀대가 깨지거나 주삿바늘이 접히는 등 재활용 차단